

이땅은 본래부터 불국토 - 한국의 불교지도

“민족문화 창달의 원동력”

불교박물관이라 할 만큼 많은 성보물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인들은 신라왕이 곧 정토 세계임을 믿고 정토신앙을 숭앙했듯 시대마다 지역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불교를 믿으며 자신이 사는 땅을 불국토로 가꾸고자 했었다. 때문에 마을마다 고개마다 돌부처가 조각돼 모셔졌고 마애불이 자연로운 미소로 새겨져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이다. 그 불상들이 지금은 국보나 보물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한국불교의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불·보살상이 국보·보물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교문화재 가운데 불상은 국보 25점 보물 1백52점 중요민속자료 13점 등 1천78점이나 되고 보살상도 국보 13점 보물 31점 등 44점이나 된다. 이밖에도 건축물은 국보와 보물을 합쳐 64점이,

를 따져 재미있게 구성된 책들도 안가리에 흔하게 나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고려시대까지의 거의 모든 생활용어가 불교용어였다는 학계의 발표로 비추어 본다면 불교언어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도사

지난해 문체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불교신도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1백52만6천명 중 절반이 넘는 2천8백8만5천2백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제일의 종교로서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불교는 「무종교인은 불교에 가깝다」는 말이 시사하듯 한국인의 심상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린 종교로 평가되고 있다.

일상어된 불교말 많아 불자, 국민의 반수 이상

석불은 15점, 방불등 성물은 44점, 석탑은 국보가 37점 보물이 1백84점이나 된다.

언어

불교는 언어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어 왔다. 무심코 쓰는 우리의 일상용어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용어가 불교에서 나온 말인가를 따져보면 이땅이 불국토임을 또 한번 절감할 수 있다.

「이관사관」, 「아미타법석」, 「아사리관」 등의 어원이 불교에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이와 예도 수많은 단어들 불교적 의미를 갖추었거나 공전된 채 우리의 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용어와 일상용어

종단별로 나눠보면 조계종이 1천5백여만명으로 전체 불자의 절반이상을, 태고종이 3백80만명, 천태종이 1백50만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8백17만, 부산, 경남 5백85만, 대구, 경북 4백42만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통계는 보여 준 <한국의 종교현황> 외에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1991>에는 불교인구의 남녀비율이 41대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이 21.2%, 30~39세가 23.6%, 40세 이상이 55.2%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교인구의 고령화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범종단적 남북교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땅에 전해진지 1천9백년이 지났으니 그 장구한 세월동안 불교의 숭경이 아니 스민 곳이 어디 있으랴.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명, 산이름에서 불교의 숭경을 느낄 수 있다.

서울 은평구에는 불광동이 있는데 알고보면 '부처님 빛 고을'이라는 뜻이다. 서울의 동쪽에는 불암산이 있는데 이도 역시 '부처마위'라는 뜻이고, 보현봉은 '보현보살'에서 나온 이름이며 반야봉

도 알고보면 불교의 '수고', 즉 고통을 받아들이는다는 오묘한 철학이 담겨있다. 고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인생은 고행이다. 그러므로 신다는 것은 고의 연속이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의 옛 문화, 예술에도 불교의 숭경이 깃들어 있으니 <심청전>이 그렇고 <회심곡>이 그렇고 <별주부전>이 그렇다. 특히 <별주부전>은 부처님의 전생담인 <자라카>에 수록된 <악어와 왕승이>

우리 조상들의 행동지침이었던 급기여에도 알고보면 살생을 하지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있다.

불교는 이렇듯 이땅에 들어온 후 천천히 퍼져나간 우리의 숭경, 우리의 깃줄 속에 녹아들어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하고, 맑고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우리의 인생관·가치관·세계관을 올바르게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왔다.

만일 이땅에 불교가 없었

생명존중·더불어 살기 강조

생활습관



윤정강

(방송작가·출판기획부장)

은 불교의 반야에서 나온 이름이다.

불교와 연관된 땅이름이나 산이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불광○○교회」 이런 타종교의 간판을 보는데 물어보면 '부처님 빛나는 마을 ○○○교회'라는 뜻이니 손오공이 제야무리 날뛰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듯 타종교가 아무리 설쳐도 부처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가 우리의 말과 글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가는 새삼 따질 것도 없다.

- 옷자락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다.

- 몸 심은 데 콩나고 팔 심은 데 팔난다.

- 이관사관이다.

- 아미타법석이다.

- 수리장이다.

- 공은 닦은대로 가고 죄는 지은대로 간다.

이런 속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 강단, 작가, 장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명칭과 단어들 대부분 불교 용어에서 그대로 전승되었다. 심지어 우리의 인사말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에

다면 우리는 오늘 과연 무슨 문화와 예술을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슬막히는 산업사회에서 맑은 바람 한번 쏘일 곳이 있을 것인가! 사활역본에 자연이 보존되었고, 보존된 자연역본에 관광이라도 할 수 있으니 따지고 보면 불교역을 4천2백만 국민이 행복히 보고 있는 셈이요, 관광한국의 자산도 불교가 아니면 대체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필도강산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천년 고찰들이 없다면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관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흔히 5천년의 문화 예술을 자랑하지만 건축미술 조각은 물론 문화의 견인차인 출판인쇄도 불교가 시작했고 꽃을 피워 서양의 구텐베르크보다도 70년이나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직지심체요령>을 찍어냈으며 목판본 또한 <무구정광대라니경>이 세계최초의 목판 인쇄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불교는 이땅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의 전부를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을 가꾸어온 어머니였다.



◇ 금산 보리암 화엄봉 바위자세가 빛날 화(華)지의 한자형 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이 바위위에서 화엄경을 독경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화엄봉'이라 부른다.

해외여행은 SUMERU TOUR로

(주)수미산여행사는 불자여러분의 성지순례 이외 여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 여권 및 비자 발급 수속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 호도관광(회갑 및 칠순 기념여행)
- 단체여행(불교성지순례 이외 일반관광)
- 허니문 (해외 - 방콕, 캄, 사이판, 하와이, 호주 등) (국내 - 제주 등)
- 기타 여행에 관한 사항
 1. 해외 여행자보험, 해외 호텔 예약
 2. JR PASS, 유레일 패스 등

신입사원모집

(주)수미산여행사는 창립5주년을 맞이하여 재창립의 정신으로 의욕에 찬 청년분자들을 기다립니다.

• 제1기 신입사원 모집 남: 00명, 여: 00명	- 95년 2월 졸업 예정자 - 관광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 경력사원 남: 0명(T/C 및 영입 유경험자) 여: 0명(가운타 및 O.P. 담당)	- 관련분야 2년 이상 유경험자
• 공학 고졸 이상인자 • 외국어 가능자 우대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특별시 중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대탑(사원)



▶ 마니푸르댄스 마니푸르주(인)



▶ 2000년 아시안나벳 모자를 남기고 있는 선타의 대탑